

Part 1 — 돈의 종말

회차 도입 — 패권전쟁의 결말은 한 가지가 아니다

· 정리 2026-05-13

달러가 무너지면 위안이 차지할까? 둘 다 무너진다.

미·중 패권전쟁의 결말은 단순히 '미국 승리' 또는 '중국 승리' 두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대립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양국 모두가 쇠락의 길을 걸으며 세계가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는 시나리오까지 — 가능한 결말은 최소 4가지입니다.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패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두 통화의 가치가 함께 하락하거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4강은 그 무대를 깬다 — 미·중 장기적 질식전, 종이금 → 실물금 대전환, 그리고 한국 원화의 4중 취약 구조까지.

134%

GDP 대비 미국 국가부채 (2026, WWII 이후 최고) — 위기 없는 QE 강제까지 얼마 안 남았다

달러가 무너지면 위안화가 차지할까요? 정답은 둘 다 무너집니다.

GDP 격차의 빠른 축소 — 그리고 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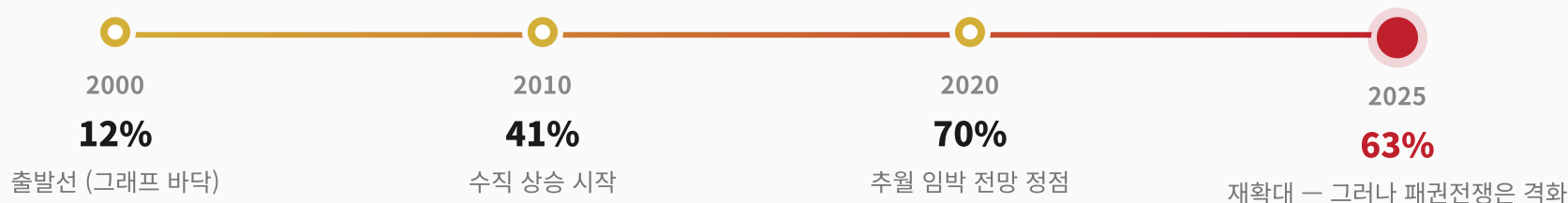
미·중 패권 전쟁의 직접 발단은 양국의 GDP 격차가 매우 빠르게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2000년 12%에 불과했던 중국 GDP는 **2010년 41%**, **2020년 70%까지** 추격했고, 많은 전문가는 2030년대 추월을 점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2025년 63%로 후퇴**. 원인은 세 가지 — 중국 자체의 성장 둔화, 위안화 가치 하락, 미국의 패권 압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GDP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데도 패권 전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격차 축소가 패권 전쟁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기 전에, 격차 재확대를 만든 중국 경제의 약점들을 살펴봅니다.

■ 미국 대비 중국 GDP의 25년 추이



중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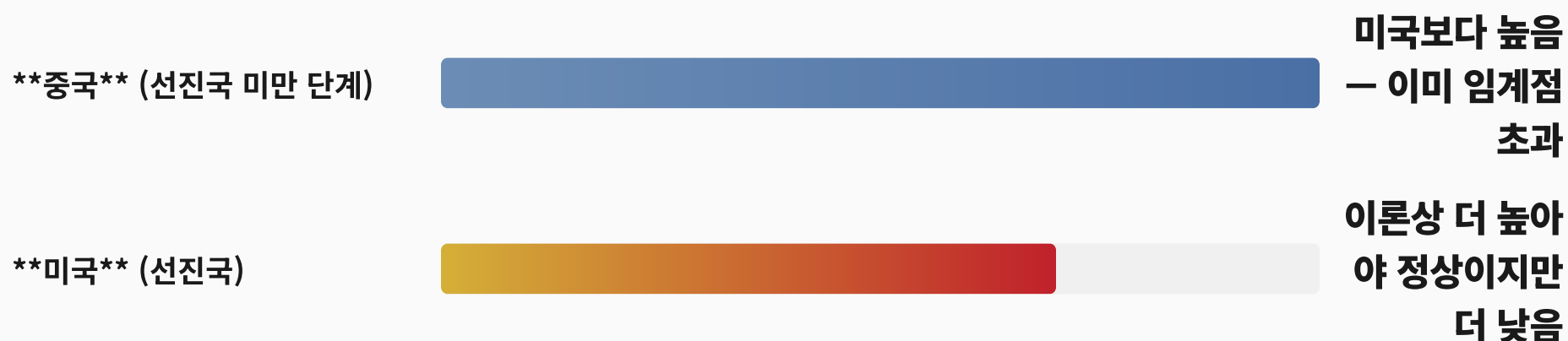
GDP 격차 재확대를 만든 중국의 구조적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보다 더 높은 GDP 대비 총부채비율.**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 시스템이 고도화되며 부채가 증가하지만, 중국은 G2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단계상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보다 부채 비율이 낮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채는 초기 단계에서 성장을 가속하는 배터리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나 배터리 양을 두 배가 아닌 8배·16배로 무한정 늘리면 그 무게가 결국 주행을 방해합니다. **중국의 부채는 이미 성장을 저해할 만큼 막대한 수준에 도달했고, 최근의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과잉 생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고착화. 중국은 한국식 외환위기를 가장 경계했고 강력한 금융 시장 방어벽으로 외환 위기 없이 고속 성장했지만, 이제 일본식 디플레이션('일본화')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셋째, 무역장벽으로 수출 증가율 둔화. 중국이 시도한 '더 저렴한 생산 + 더 심한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 제조업을 잠식하려던 전략은 미국·유럽·캐나다·동남아·남미까지 가세한 관세 장벽으로 무산됐습니다. 중국 우호국이었던 동남아·남미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 GDP 대비 총부채 — 중국 vs 미국 (2025)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다 = 구조적 이상 신호. 일본화 함정 + 관세 무역장벽으로 약점 누적.

작아진 파이 — 미·중 30년 성장률 모두 추락

여기서 회차의 진짜 핵심 명제가 등장합니다. **GDP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데도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이유는 '작아진 성장 파이'**입니다. 미국 1960s 4.4% → 2030s 전망 1.6%까지, 중국 1990s 10% → 2030s 2.5%까지 — 둘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파이가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남의 파이를 빼앗는 약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 과거보다 어려워졌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패권 전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기적 질식전(Long Suffocation)'으로 진입했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미·소 냉전과의 결정적 차이를 봅니다.

■ 미·중 10년 단위 성장률 (1960s → 2030s)

연대	미국	중국
1960s/1980s	4.4%	9.7%
1990s	3.4% (클린턴 호황)	10.0%
2000s	2.0%	10.3%
2010s	2.3%	7.7%
2020s 현재	(추정 2% 미만)	4.8%
2030s 전망	1.6%	2.5%

스트롱맨 리더십이 등장한 진짜 배경

미국 증시는 활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위 20% 자산 가격만 동반 상승한 결과일 뿐, 하위 80%의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위 80% 국민은 트럼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중국과 동맹국의 부를 빼앗아 자국의 이익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스트롱맨' 리더십이 미국 정치의 중심에 등장한 진짜 배경입니다. 이제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른 나라 성장을 흠쳐 오겠다고 공언해야만 당선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 흐름은 외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분배 금융 계정(DF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상위 1% 가구의 자산 비중은 31.7%로 1989년 통계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며, 그 액수는 약 55조 달러로 하위 90% 가구 전체 합계와 거의 동일합니다. Bloomberg(2026-01-21)는 미국 부의 불평등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격차가 정치의 약탈 본능을 강제합니다 — 동맹국의 부도, 적국의 부도, 모두 빼앗아야 한다는 압력.

미국 부의 불평등 — Fed DFA 2025 Q3

지표	값	비고
상위 1% 자산 비중	31.7%	1989 통계 시작 이래 최고
상위 1% 자산 합계	\$55T	≈ 하위 90% 합계
상위 1% 주식·뮤추얼펀드	50%	2002 40% → 확대
Bloomberg 2026-01-21	WWII 이후 최고	Postwar High 명시

미·소 냉전 vs 미·중 패권전쟁 — 5축 비교

미·소 냉전 시대(196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쟁은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속도 경주였습니다. 양국 모두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보다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면 승리하리라 믿었기에, 치열한 냉전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이 사회 전반에 존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을 강화시켜주는 마셜 플랜(유럽 재건)·일본 원조로 '관용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반면 현재의 미·중 패권전쟁은 양국 모두 부채로 시달리는 상태에서 동맹국의 부를 흡수해야 자국 성장률이 유지되는 '약탈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관세·강압 투자 유치로, 중국은 일대일로로 동맹국 부를 약탈합니다. 한국·일본·대만·유럽까지 늪에 빨려 들어가는 구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결말도 다릅니다. 미·소 냉전은 비효율적 소련이 한순간에 붕괴하면서 깔끔히 종결됐지만, 미·중은 양국 경제가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늪에 끌려갑니다. '한 방' 결판이 불가능 → 장기적 질식전.

미·소 냉전 vs 미·중 패권전쟁 5축

축	미·소 냉전	미·중 패권전쟁
양상	속도 경주	질식사 경쟁
전제	양국 모두 성장	성장 동력 꺾임
정서	낙관 지배	증오·남탓·공포
동맹	마셜 플랜·일본 원조	관세 약탈 vs 일대일로
결말	한 방 붕괴	장기적 질식전

(1) 효율의 종말 — 화폐 가치의 계단식 하락

양국이 서로의 목을 조르려면 공급망 차단이 필연적입니다. 디커플링이 심화될수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국·동맹국 물건을 사야 하므로 **가성비 개념이 사라지고 구조적 고비용 체제가 고착화**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는 동반 하락합니다.

다만 화폐 가치 하락은 선형이 아닙니다. **마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물가는 급등과 안정을 되풀이합니다. 경기 부양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물가가 급등하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면 다시 안정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지그재그가 사람들에게 "물가는 잡혔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그러나 **컴퓨팅 파워가 증가할수록 채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듯 돈의 가치는 '계단식 하락'의 형태를 보입니다.**

회차가 짙은 이 메커니즘이 곧 다음 4 특징과 연결됩니다 — 효율의 종말이 화폐의 무기화로, 무기화가 종이금 → 실물금 대전환으로 연쇄됩니다.

■ 효율의 종말 → 계단식 하락 3단

STAGE 1

디커플링

공급망 단절

양국이 서로 공급망 차단 —
가성비 사라짐

→

STAGE 2

구조적 고비용

안보 우선

비싸도 자국·동맹국 물건 매
수 강제 — 인플레이 고착

→

STAGE 3

계단식 하락

맥박처럼 뛰는 물가

빙하기·간빙기 반복 → 화폐
가치 기하급수적 하락

(2) 화폐의 무기화 — SWIFT가 만든 탈달러 블록

장기적 질식전의 두 번째 특징은 화폐 자체가 무기로 사용되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SWIFT(국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달러를 보유해도 미국의 결정 하나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브라질·인도·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계기로 탈달러화(De-dollarization)를 본격화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방식도 변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는 너무 선부른 시도였음을 인정하고, **자본시장 빗장 + 폐쇄적 디지털 위안화(CBDC)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결과: 달러 블록과 탈달러 블록으로 쪼개지는 세계.

그렇다고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다음 카드에서 이어집니다 — 1971년 닉슨이 만든 신용 화폐 체제의 기묘함을 들여다본 후에야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71 닉슨 — 빛이 빛을 보증하는 기묘한 체제

달러의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원래는 금이었습니다. **1971년 이전까지 미국 달러는 35달러당 1트로이온스의 금으로 교환 가능한 '금 교환 증서'**였고, 미국 정부는 이 약속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금태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는 실물 자산인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오직 신용에만 의존하는 **신용 화폐(Fiat Money)**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달러의 신뢰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달러라는 종이 자체가 미국 정부의 빚문서인데, 그 신뢰를 또 다른 빚문서인 국채가 보증하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언젠가 세금을 통해 그 빚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위안화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준비 자산도 미국 국채**였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의 외환보유고는 과거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되었고, 결국 자국 통화 발행의 근거가 '미국인들이 빚을 갚을 것이라는 약속'이 됐습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 — 위안화도 미국 국채 의존.

이런 기묘한 체제 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용 자체를 흔들었고, 신흥국은 미국 국채 자리를 금으로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 대전환의 첫 페이지 — 미국이 '가짜 종이금'으로 금 가격을 통제해온 역사 — 를 봅니다.

가짜 종이금 — 빅 은행 산업 전체의 묵인 패턴

지금까지 미국은 '가짜 종이 금'을 이용하여 금 가격을 통제해 왔습니다. 달러 가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금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은행들이 다소 불투명한 방식으로 금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회차가 짙은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모건스탠리(2007 소송) + JP모건(2008~2016 시세 조작, 2020년 적발)**. JP모건은 2020년 9월 미국 법무부와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 (역대 최대 시세 조작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외부 자료를 보면 같은 시기 다른 빅 은행들의 합의도 줄을 이었습니다. **Deutsche Bank가 2016년 3,800만 달러 합의(2019 승인), Bank of Nova Scotia가 2020년 8월 1억 2,740만 달러 형사 합의, Barclays가 2014년 영국 FCA 2,600만 파운드 벌금**. 회차에서 짙은 JP모건 사건이 단일 일탈이 아니라 **빅 은행 산업 전체의 묵인 패턴**임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가 적극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 JP모건 같은 금융 기관이 금 가격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 달러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개 빅 은행 합의 패턴은 회차의 이 명제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묵인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빅 은행 4개 가짜금 · 시세조작 합의

은행	합의 시점	규모
JP Morgan	2020-09	\$920M (역대 최대)
Deutsche Bank	2016 (2019 승인)	\$38M
Bank of Nova Scotia	2020-08	\$127.4M (형사)
Barclays	2014 (FCA)	£26M

2025 금의 대이동 — 강의 시점 후에도 가속

이제 가짜 종이금으로 금 가격을 억누르던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고 **구매한 금의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2025년 말 전 세계적인 '**금의 대이동**'을 촉발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금 거래 중심지였습니다 — 생산지에서 채굴된 금이 런던을 거쳐 미국으로, 다시 각국 중앙은행으로 분배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국이 **직접 실물 금을 자국으로 가져가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선물 시장에도 큰 충격이 왔습니다. 만기에 인도할 실물이 부족해 거래소가 강제로 현금 청산을 유도하면서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회차가 짙은 흐름은 **2026년에도 동일한 결로 가속** 중입니다. 세계금협회(WGC) 2026 1분기 보고에 따르면 BRICS+ 금 보유 비중은 **2019년 11.2%에서 17.4%로 6.2%p 상승**했고, 글로벌 금 수요는 1,231톤(YoY +2%) / 가치는 1,930억 달러(+74%) —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 Q1 금 시장 — 회차 시점 후 가속

지표	값	비고
BRICS+ 금 보유 비중	17.4%	2019 11.2% → +6.2%p
글로벌 금 수요	1,231톤	+2% YoY
가치 증가율	+74%	분기 사상 최고 \$193B
중앙은행 매수 의향	95%	가격 상승에도 매수 지속

(3) 화폐의 타락 — AI·군비의 질식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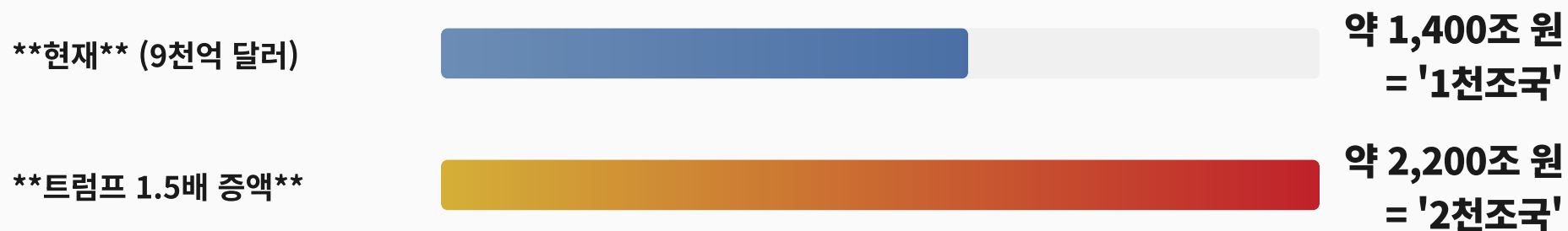
장기적 질식전의 세 번째 특징은 '화폐의 타락(Currency Debasement)'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구조적인 재정 적자로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지금의 패권 전쟁은 상대의 목을 조르는 장기적 질식전이라 단순한 긴축이 불가능합니다.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군비 증강**이라는 두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 전쟁에서 뒤쳐지면 곧 패배라는 '**질식의 공포**'가 천문학적 국채 발행을 강제합니다. 동시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 **달러와 위안화의 동반 의도적 타락**.

회차가 짙은 미국 군비의 정량은 충격적입니다. 현재 9,000억 달러(약 1,400조 원)에서 트럼프가 1.5배 증액 선언 — **1.5조 달러(약 2,200조 원)**. 미국은 더 이상 '1천조국'이 아니라 '**2천조국**'이 됩니다. 이 천문학적 국채는 결국 양 진영 간 거래를 중개할 대안 통화 — 특히 금 — 의 중요성을 더욱 키울 전망입니다.

■ 미국 군비 — 1천조국 → 2천조국



1.5배 증액 → 한국 1년 GDP(~2,500조 원)에 육박하는 군비. AI·군비 질식 공포가 천문학적 국채 발행을 강제.

(4) 잣은 전쟁 — 펠리페 2세부터 영국까지

장기적 질식전의 네 번째 특징은 **잣은 전쟁**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중동·베네수엘라·이란 등 세계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동시에 자국민 복지도 책임져야 하는 '**총과 버터(Guns and Butter)**'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쇠락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항상 **과도한 전쟁 비용**이었습니다. 16~17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펠리페 2세의 무리한 전쟁으로 4번 연속 파산**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역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르면서 **패권국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과도한 전쟁 비용이 결국 화폐의 타락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교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전쟁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기 들어 후티 반군 공격, 이란 공습, 베네수엘라 핵 항모 배치** 등 적극적 군사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 패권국 쇠락의 역사적 패턴

패권국	시기	결과
스페인	16~17세기	4번 연속 파산 (펠리페 2세 무리한 전쟁)
영국	19세기 → 20세기	패권 박탈 (1·2차 대전 비용)
미국	2026~	총과 버터 딜레마 — 진행 중

트럼프 화약고 — 2026 중간선거 vs 2028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으로 인기가 상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점령이나 이란 공습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회차가 정리한 시점별 화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베네수엘라·그린란드·이란이 위험 지역. 2028년 차기 대선 기간에는 기존 화약고에 대만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함대를 파견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핵 항공모함 함대를 배치**하고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됩니다.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음 카드에서 다룰 부채 폭발의 직접 동인입니다.

트럼프 군사 행동의 시점별 화약고



레이건 vs 트럼프 — 위기 없는 QE 강제 ★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인물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와 지금의 트럼프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레이건 시절 **GDP 대비 미국 국가 부채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 ('스타워즈 계획')에서 경제력으로 소련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낮은 부채 비율 덕분에 장기 군비 경쟁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소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GDP 대비 부채는 회차가 말한 120%를 이미 넘어 134%(WWII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미국 의회예산국·FRED 외부 데이터).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결국 연준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2020년 팬데믹 때와 달리, 특별한 위기 상황 없이 연준이 국채 매입에 나선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실물 자산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회차가 직접 제시하는 가장 명확한 예의주시 신호이며, 회차 시점 후 부채가 134%로 더 악화된 사실은 그 시점이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레이건 vs 트럼프 — 결정적 차이

축	레이건 시대	트럼프 시대
GDP 대비 부채	30% (1980 26.2% / 1988 40.9%)	120% (회차) / 134% (실제 2026)
군비 경쟁 결과	부채 여력 → 소련이 먼저 무너짐	부채 여력 X → 연준 QE 강제
1기 vs 2기	(해당 없음)	1기: 실리·전쟁 회피 / 2기: 강한 미국·전쟁 선호

달러 동반 침몰 최상층 —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달러 가치가 타락한다고 해서 위안화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고, 위안화의 신뢰 자산조차 미국 국채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중국뿐 아니라 유럽·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종이돈 시스템이 함께 침몰하는 가운데 달러가 최상층에 위치해 있어 가장 늦게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삼 년 산다' 또는 '씩어도 준치' 같은 속담처럼,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지위 덕분에 타락 과정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통화 비교 — 동반 침몰 속의 상대 우위

통화	위기 요인	상대 위치
유로화	우크라 전쟁 비용 → 경제 악화	위기 가속
일본 엔화	에너지 의존 + 빠른 고령화 + 막대한 국가부 고질적 인플레이션 악화	
위안화	부동산 붕괴 + 경기 침체	신뢰도 흔들림
미국 달러	(상대적 비교 우위)	최상층 — 가장 늦게 침몰

원화 4 취약 + 매월 예의주시 신호

이러한 장기적 질식전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화는 특히 취약합니다. 회차가 짙은 4 취약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번 자본 유출.** 매년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원화 가치의 상대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번 미·중 디커플링에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 양국 사이에서 이익을 얻어왔던 한국이 이제는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훼손될 위험이 큼니다.
- ③**번 한국 스스로 타락시킨 원화.** 2022년 1월 이후 한국 통화량 증가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빨랐고, 이는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④**번 인구구조 악화.** G2였던 일본조차 인구구조 악화로 엔화가 속절없이 하락했고,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회차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 "신중하라 / 예의주시하라 / 변화의 흐름에 정확히 올라타라". 한국 투자자가 매월 모니터링할 핵심 신호 4가지를 강의 메시지에서 도출하면 — **(1) 중앙은행의 금 대이동 가속도** (2026 Q1 BRICS+ 17.4%로 가속 중) **(2) 동반 침몰 속 달러 상대 강세 흐름** (가장 늦게 무너지는 최상층 위치) **(3) 위기 없는 QE 트리거** (연준 평시 국채 매입 시작 시점 — 강의가 직접 가리킨 가장 명확한 시그널) **(4) 2026·2028 화약고** (트럼프 군사 행동 발생 여부의 단기 변동성 신호).

패권 전쟁의 양상이 장기적 질식전으로 바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2020년대 말과 2030년대에 걸쳐 화폐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정확히 올라타야만 우리의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달러는 가장 늦게 무너진다 —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통화는 없다.

오늘 4강은 단순한 패권 다툼이 아니라 **장기적 질식전**의 4 메커니즘 — 효율의 종말 / 화폐의 무기화 / 화폐의 타락 / 잦은 전쟁 — 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종이금이 실물금으로 대전환되고 있는 거시 무대였습니다.

회차의 가장 명확한 예의주시 신호는 단 하나 — **연준이 평시에 국채 매입을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달러 신뢰는 급락하고 실물자산은 폭등합니다. GDP 대비 부채가 회차 시점 후 134%로 더 악화된 지금, 그 시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은 4 취약 요인으로 달러보다 빨리 흔들립니다. 강의가 강조하는 것은 즉시 행동이 아니라 **예의주시** — 중앙은행의 금 대이동, 달러 상대 위치, 위기 없는 QE 트리거를 매월 관찰하면서 다음 5강의 화폐 혁명·구체적 투자 전략에 대비합니다.

달러는 가장 늦게 무너진다 —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통화는 없다.

Part 1-5강 (2026-01-29)

돈의 미래, 누가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

Part 1 시리즈 마지막 — 화폐의 혁명과 구체적 투자 전략 (CBDC·금·실물자산)

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1-4강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 핵심 논지와 외부 자료 보강을 통해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지표 출처: gold.org · visualcapitalist.com · onlinegold.org · federalreserve.gov · inequality.org · bloomberg.com · us-debt-clock.com · fred.stlouisfed.org · sotosclassactions.com · auronum.co.uk